

부치사(adposition)의 기능*

- 유형론의 관점에서 -

이 기 갑
(목포대학교)

Lee, Ki-Gap. (2005). On the functions of adpositions - the typological perspective. *Language Research* 41(3), 605-633.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functions of adpositions from the typological perspective. Nine different languages including Korean, Japanese, Chinese, Arabic, English, German, French, Spanish, and Russian are surveyed for this research. Below are some new observations.

(a) Adpositions have three different functions: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While some languages contain just two of these functions (syntactic and semantic), other languages like Korean and Japanese contain all three functions. Besides indicating the case, syntactic adpositions also contribute to conjoin both nouns and clauses. Semantic adpositions are used to express various lexical and grammatical meanings besides the case. Pragmatic meanings, such as the speaker's emotions or honorific relations, are represented by pragmatic adpositions in Korean and Japanese.

(b) The case of human language can be indicated by word orders, inflectional endings, and adpositions. The difference in amount of cases that these three types can express is represented in the scale of inclusion: 'adposition \supset inflectional ending \supset word order'. The priority of selecting the core case by these three types is 'word order $>$ inflectional ending $>$ adposition'.

(c) The case hierarchy can be postulated on the basis of the three types of case indication: 'nominative $>$ accusative $>$ dative $>$ genitive, ablative, locative, instrumental $>$ comitative, purposive, allative, perlocative, comparative'. While the cases located to the right have a tendency to be represented by adposition, the cases located to the left tend to be indicated by word order and inflectional ending.

Key words: adposition, preposition, postposition, circumposition, case, core case, peripheral case, case hierarchy, typology.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세계 주요 9개 언어의 유형론적 비교 연구'(과제번호 KRF 2003-074-AM0018)의 일부이다.

** 이 논문의 초고를 검토한 심사위원들로부터 논문의 체제, 서술의 방식, 참고문헌의 작성 등과 같은 점에서 풍부한 지적을 받았다. 유익한 지적을 해 준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1. 머리말

언어 유형론(linguistic typology)은 특정한 언어적 변수에 따른 논리적 가능성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세계의 여러 언어들을 각각의 유형에 소속시키는 연구 방법론을 말한다(Comrie 1989:34). 이러한 연구는 곧 인간 언어의 변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어순이라는 언어적 변수를 예로 들면, 고정 어순을 갖는 경우 주어(S)와 목적어(O) 그리고 서술어(V) 사이에 논리적으로 가능한 어순은 SOV, SVO, VSO, VOS, OVS, OSV 등 여섯 가지이다. 그런데 세계의 언어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언어들은 SOV, SVO, VSO의 고정 어순을 갖는 반면, VOS, OVS, OSV의 어순을 갖는 언어는 극히 드물다. 즉 인간 언어는 주어가 목적어에 앞서는 어순이 일반적이며, 반대의 어순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어순의 유형론적 연구는 보여 주는 것이다(Comrie 1989:35). 이처럼 언어 유형론은 언어적 변수에 따른 가능한 유형 가운데 인간 언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유형이 어떤 것인지, 또는 극히 소수의 언어에서만 사용되거나 아니면 전혀 사용되지 않는 유형은 어떤 것인지 등을 알아보고, 그 이유를 따지며, 이로부터 인간 언어의 보편적 원리를 도출해 내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어순의 유형론에서 주어가 목적어에 앞선다는 어순이야말로 인간 언어가 보여 주는 보편성의 한 예인 셈이다. 물론 이 보편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목적어가 주어에 앞서는 언어들이 소수 발견되기 때문이다(Comrie 1989:35). 그러므로 언어 유형론에서 도출하는 보편성은 절대적 보편성(absolute universals)이 아닌 보편적 경향(universal tendency)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양한 언어적 변수 가운데 부치사(adposition)가 보이는 기능에 주목하였다. 즉 인간 언어에서 사용되는 부치사(전치사나 후치사 등)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대체로 문법적 기능이 일반적이지만, 의미적,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소수이지만, 일반 어휘에 맞는 기능의 부치사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인간 언어에서 부치사가 수행하는 기능의 구체적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려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부치사가 수행하는 문법적 기능의 전형적인 것은 격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인간 언어에서 격은 다양한 수단에 의해 표현되는데, 부치사도 그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부치사와 다른 격 표지 수단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 이 논문에는 격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격 표지들의 사용 양상을 통해, 부치사와 다른 격 표지들 사이의 보편적 관계를 도출해 내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 둔다.

이 논문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9개 언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언어 유형론은 가능한 한 다양한 유형의 언어를 비교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연구자 가까이에서 해당 언어 전문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언어로서 위의 9개 언어가 선정된 것이다. 대체로 인구에 속한 언어가 많고, 아프리카어나 아메리카 인디언어 또는 말레이-폴리네

시아어 등의 언어가 빠진 것이 한계일 수 있는데, 이들 전문가들을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대신 아프리카어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어 전문 학자인 독일의 Bernd Heine와 Christa König의 강연 원고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두 학자는 우리의 유형론 연구를 위해 2004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네 차례의 강연을 해 주었고, 이 강연 원고는 이번 작업의 기본 틀을 구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아울러 밝혀 둔다.

2. 부치사의 개념

인간 언어의 구체적 수행은 문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크게 명사와 동사의 두 가지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사물(thing)과 활동(activities)을 인식론의 기본 범주로 설정하였는바, 명사와 동사는 바로 이 사물과 활동에 그대로 대응되는 언어 범주인 것이다. 물론 실제 언어에서는 이 두 요소 이외에도 수식적 기능을 맡는 다양한 품사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결코 문장을 이루는 기본 요소라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나 관형사,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들은 그 자체로서 충분한 존재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수식적 기능은 명사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다. 다시 말하면 형용사, 관형사, 부사들은 일반적으로 명사가 맡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명사는 이와 달리 형용사, 관형사, 부사의 기능을 맡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명사는 이 세 품사보다도 더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어린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할 때에도 명사와 동사는 다른 품사에 비해 훨씬 먼저 습득되는데, 이 점도 이 두 품사가 인간 언어의 기본적인 어휘 범주임을 뒷받침한다.

동사가 맡는 서술어(predicate)와 명사가 맡는 논항(argument)이 결합하여 명제(proposition)의 골격을 이루고 여기에 수식 성분들이 다시 결합되어 풍부한 의미를 담게 된다. 이때 명사는 한편으로 동사의 논항으로 기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수식의 기능을 하게 된다. 명사가 논항의 구실을 하는 경우에는 서술어와 일차적 관계를 맺지만, 수식어의 구실을 하는 경우에는 수식을 받는 요소와 일차적 관계를 맺을 뿐이다. 그 어느 경우이든 명사가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그 기능을 나타내는 일정한 표지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책’이라는 명사가 문장 내에서 일정한 문법적 역할을 맡으려면, 그 역할을 말해 주는 문법적 표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 이런 표지가 없다면 청자는 무엇에 근거하여 해당 문장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 명사의 문법 표지는 청자가 의미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필수적 요소인 셈이다.¹⁾

1) 물론 논항과 술어의 문법적 관계가 술어의 의미나 발화 상황에 의해 예측 가능한 경우, 문법적 표지는 생략되거나 아예 안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4.2에서 설명되듯이 명사에 어휘적 부치사가 결합될

명사의 문법적 기능을 표현하는 표지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성조, 곡용어미, 접사, 단어, 어순 등 형태적 지위에 따라 다양한데, 이를 언어의 층위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음운적 층위 : 성조²⁾

형태적 층위 : 곡용어미, 접사, 단어

통사적 층위 : 어순

물론 각 언어는 위의 여러 가지 문법 표지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영어를 비롯한 인구어는 어순과 단어를 함께 사용하며, 중국어도 이 점에서는 인구어와 동일하다. 오직 단어에만 의존하는 한국어나 일본어는 이 점에서 오히려 예외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명사로 하여금 문장 내에서 다양한 문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문법 표지 가운데 특히 형태적 층위의 단어 또는 이에 준하는 표현들을 따로 부치사(adposition)라 부른다.

부치사는 명사나 명사구와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문장, 심지어는 부사나 동사와 결합되는 수가 있다. 문장은 명사에 대응하는 문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여기에 부치사가 결합하는 것은 수궁이 가는 일이지만, 부사나 동사에 결합되는 부치사의 존재는 이례적인 것이라 하겠다. 영어의 예를 들면 'in short of'나 'till then'과 같은 예에서 전자는 형용사, 후자는 부사에 전치사가 쓰이고 있다.³⁾ 대체로 명사, 명사구 뒤에 결합되는 부치사는 격과 같은 문법적 기능을 갖지만, 부사나 동사에 결합되는 경우는 어휘적 기능이나 화용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문장에 결합되는 부치사는 격을 표현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화용적 기능을 갖는 수도 있다. 다만 부사나 동사에 결합되는 부치사는 명사에도 결합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명사에 결합되는 부치사(예를 들어 격표지)가 부사나 동사에도 반드시 결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치사는 명사에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부치사로 분류되는 문법 표지 가운데 단어는 가장 손쉽게 파악되는 것이다. 영어나 독일어 등 인구어의 전치사들이 모두 이 범주에 드는데, 단어로서의 형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명사와의 통합적 관계를 갖는 경우이다. 이들 부치사는 뒤따르는 명사와 형태적으로 구별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명사로부터 떨어져 문장 내의 다른 위치로의 이동도 가능한 정도로 독립성이 강하다. 아래처럼 전치사 to가 후행 명사와 분리되어 쓰이는 예가 이를 보여 준다.

경우, 따로 문법 표지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법적 상황에서 문법 표지는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2) König (2004)에 의하면 성조가 격을 나타내는 언어는 아프리카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3) Sweet (1955:136)은 이 경우의 형용사나 부사는 각각 변환된 명사 'in a short statement', 'till the present time'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김선 2005에서 재인용).

- (1) a. What was she referring to _____?
 b. This is the book she was referring to _____.

그러나 같은 인구에 속하는 언어라 할지라도 이러한 전치사의 분리 가능성은 언어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어는 전치사가 명사로부터 분리되어 쓰일 수 없다(이숙현 2005). 이것은 결국 부치사가 단어의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명사와의 통사적 결합력은 언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이 점에서 프랑스어보다도 명사와의 결속력이 더 강한 경우이다. 이 두 언어에서 부치사는 단어로서의 자립성이 없이 언제나 명사에 결합되어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의 부치사는 접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부치사들은 문맥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고, 문장 뒤에 결합하는 수도 있는데,⁴⁾ 이런 특징들은 접사라면 불가능한 것들이다. 따라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기술 문법에서는 부치사를 단어로 간주하고 ‘조사’라는 어휘범주(품사)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 (2) a. 올 여름-서-부터-라도 시작해라.
 b. yama-made-ga(산까지가)
- (3) a. 이거-Ø 칠수-Ø 갖다 줘라.
 b. kore-Ø Taro-ni motte itte kure.(이거 다로에게 갖다 줘라)

한편 곡용 어미는 명사의 일부를 이루면서 경우에 따라 명사로부터의 분리도 가능하지만,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철저히 의존적인 요소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곡용 어미를 명사와 분리하여 부치사란 범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결국 부치사란 단어의 자격을 갖는 문법 표지들을 한데 묶어낸 범주로서, 순전히 의존적인 곡용어미와 한편으로 구별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조나 어순 등 층위가 다른 문법표지와도 구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부치사의 위치

부치사는 명사에 붙는 문법 표지이기 때문에 그 위치는 논리적으로 명사의 앞 또는 뒤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뿐인데, 실제로 실현되는 부치사들도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다. 이때 명사의 앞에 오는 부치사를 전치사(prepositions), 명사의

4) 문장에 결합되는 부치사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a.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다.
 b.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c. 죽느냐 사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뒤에 오는 부치사를 후치사(postpositions)라 부른다.

어떤 언어가 전치사와 후치사 중 어느 것을 문법 표지로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언어의 어순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언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인 핵(head)과 의존어(dependent) 사이의 어순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핵인 서술어와 의존어인 목적어의 어순이 OV인 경우, 즉 의존어가 핵의 앞에 오는 경우에는 후치사가 선호되고, 반대로 VO처럼 의존어가 핵의 뒤에 오는 어순에서는 전치사가 선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부치사와 명사 사이의 문법적 관계도 일종의 핵과 의존어 사이의 관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아래 예 (4)와 (5)는 아프리카어 가운데 VSO 언어가 전치사를 사용하고, SOV 언어가 후치사를 사용하는 경우이다(Heine 2004).

- (4) VSO language = prepositions: Maasai (Eastern Nilotic, Nilo-Saharan)
- | | | | |
|------|-------|------|---------|
| éyeí | oldía | atua | énkajl. |
| be | dog | in | house |
- ‘The dog is in the house.’

- (5) SOV language = postpositions: Dahalo (Cushitic, Afroasiatic)
- | | | | | |
|------|---------|--------|--------|----------|
| mui | ʒukwata | middzi | ká’ime | tl’aggi. |
| town | in | houses | many | it.has |
- ‘There are many buildings in the town.’

물론 부치사의 위치와 근간 성분의 어순 사이의 일치 관계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여러 언어를 조사해 보면 예외가 다수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Heine (2004)에서는 아프리카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해 본 결과, VSO 언어는 전치사, SOV 언어는 후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SVO 언어는 전치사와 후치사를 모두 허용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하면 VO 어순이라 할 지라도 후치사를 사용하는 언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예 (6)이 이 점을 보여 준다.

- (6) Swahili (Bantu, Niger-Congo)
- | | | | | | |
|----|-----------------------------|-----------|---------|---------|---------------------|
| a. | Juma | anakwenda | katika | nyumba. | Preposition |
| | Juma | goes | in | house | |
| | ‘Juma goes into the house.’ | | | | |
| b. | Juma | anakwenda | nyumba- | ni. | Postposition/Suffix |
| | Juma | goes | house- | in | |
| | ‘Juma goes into the house.’ | | | | |

표 1은 Heine (2004)에서 300개의 아프리카어를 대상으로 하여 근간 성분의

어순과 부치사의 어순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인데,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SOV 언어에서는 후치사가 95%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지만, SVO, VSO 언어에서는 후치사가 44%에 불과하여 전치사와 거의 같은 비율을 갖고 있다.⁵⁾

표 1. 근간 성분의 어순에 따른 다른 어순의 일치 비율(총 300개 언어)

	SOV languages	SVO or VSO languages
Postposition	95%	44%
Genitive-head	86%	36%
Numeral-noun	60%	5%
Demonstrative-noun	58%	11%

SVO 어순을 갖는 인구어의 여러 언어들도 전치사를 주로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 후치사를 쓰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영어는 전치사가 주류를 이루지만, ago, excepted 등은 명사 뒤에 오는 후치사라 할 만하다. 또한 notwithstanding은 전치사와 후치사의 두 가지로 쓰인다(König & Kortmann 1991). 그러나 영어에서 후치사로 쓰이는 예는 극히 소수에 머물고 대부분은 전치사를 사용하므로, 이러한 예외적 현상이 부치사의 어순 관계를 부정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독일어 역시 전치사가 주를 이루지만 부분적으로 후치사가 쓰이기도 하는데, 그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전치사와 후치사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역사적으로 후치사가 전치사로 변한 예는 있지만,⁶⁾ 그 반대로 전치사가 후치사로 바뀐 예는 찾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어에서 후치사가 불안정한 위치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명사에 대한 부치사의 상대적 위치가 앞 또는 뒤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는 지적을 앞에서 한 바 있는데, 이 점에서 독일어의 부치사는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 준다. 독일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전치사가 주류를 차지하면서 한편으로 후치사가 부분적으로 쓰이는 수가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명사의 앞과 뒤 두 위치에 함께 올 수 있는 부치사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부치사는 일반적인 부치사와 달리 두 개의 요소로 되어 있어 그 중 하나는 명사의 앞에, 다른 하나는 명사의 뒤에 온다. 다시 말하면 명사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부치사가 하나의 불연속적인 결합(discontinuous combination)을 보이는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전치사와 후치사가 결합한 형식이라 할 수도 있는 이런 부치사를 환치사(circumpositions)라 부르는데, ‘an-vorbei (-을 지나서), um-willen (-을 위하여), von-an (-로부터), von-wegen (-때문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조경화 2005). 환치사는

5) 표 1은 부치사와 명사 사이의 어순이 근간 성분의 어순에 일치하는 비율이 ‘소유격-머리명사’, ‘수사-명사’, ‘지시사-명사’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 준다.

6) ‘betreffend (-과 관련하여), entsprechend (-에 상응하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언어에 전치사와 후치사가 공존할 경우 가능한 부치사라 할 수 있는데, 독일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치사가 주류를 이루지만, ‘halber (때문에), zuliebe (-을 위하여), zuwider (-을 위반하여)’ 등은 후치사로 기능하며, 그밖에 ‘entgegen (-을 향하여), entlang (-을 따라서), entsprechend (-에 상응하여), gegenüber (-의 맞은편에), gemäß (-에 따라서), nach (-에 의하여), ungeachtet (-에도 불구하고), wegen (-때문에), zufolge (-에 의거하여)’ 등은 전치사와 후치사의 두 용법을 갖는다. 이처럼 전치사와 후치사가 모두 쓰이는 언어적 환경이 환치사를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전치사와 후치사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는 언어에서는 환치사와 같은 트기적 성격의 부치사가 발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후치사와 마찬가지로 환치사 역시 전치사에 비해 그 위치가 불안정하여 전치사나 후치사로 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환치사 ‘gegenüber’는 18세기에 후치사로 쓰이기 시작했고, 19세기 이후에는 전치사로도 사용되었다(Lehmann & Stolz 1992/2002:37, 조경화 2005). 이처럼 ‘환치사 > 후치사 > 전치사’의 변화 방향은 독일어에서 위치가 불안정한 두 부치사류, 즉 환치사와 후치사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위치의 전치사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말해 준다.

4. 부치사의 기능

4.1. 통사적 기능

4.1.1. 격표지

부치사는 명사의 문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표지 역할을 한다고 규정한다(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법적 지위’란 결국 서술어와 논항 사이의 관계, 또는 다른 표현을 수식하는 수식 관계를 가리킨다. 이때 서술어와 논항 사이의 관계는 문법학에서 ‘격(case)’이라고 부르는 문법범주이므로, 격 표시 기능이야말로 부치사의 가장 전형적인 기능인 셈이다.

격은 학자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왔다. 인구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격의 정의는 명사의 곡용이 기준이 되었다. 명사의 형태 변화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이 형태 변화, 즉 곡용이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을 분리해 내어 이를 격이라 불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언어에는 곡용이 없는 언어가 많다. 또한 명사에 곡용과 유사한 형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양상이 반드시 인구어와 같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격을 보편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곡용과 같은 형태적 기준이 아니라 인구어의 곡용이 수행하는 문법적 기능만을 따로 분리하여, 이와 같은 문법적 기능들이 인구어 이외의 언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⁷⁾ 즉 형태적 기준 대신 기능적 기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7) 한편 König (2004)는 명사/명사구가 핵어에 대해 갖는 곡용 체계를 격이라 정의하고, 특히 부치사는

Blake (1994)는 주격(nominative), 목적격(accusative), 소유격(genitive), 여격(dative), 처격(locative), 탈격(ablative), 도구격(instrumental), 공동격(comitative), 목표격(purposive, 'for'), 향격(allative, 'to'), 통과격(perlative, 'through'), 비교격(comparative, 'than')과 같은 12개의 보편적 격을 설정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12 개의 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몇 가지 격을 더 추가할 여지는 있다(예를 들어 '호격' 등). 또한 이른바 중심격(core case)을 이루는 주격, 목적격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나머지 주변격(peripheral case)의 설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Blake의 12 가지 격은 격의 유형론을 위해 마련된 작업상의 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격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음운적 층위의 성조를 이용하는 수가 있고, 어순을 이용하는 언어가 있다. 또한 곡용 어미나 부치사를 이용하는 언어도 있으며, 동사에 명사의 격 관계가 표시되는 교차지시(cross reference)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북서 코카서스어에 속하는 아바자어(Abaza)가 교차 지시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언어라 할 수 있다(Dixon 1994, 송경안·오윤자 2005). 한편 언어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독일어는 곡용 어미와 부치사를 주로 사용하고, 영어는 어순과 부치사를 주로 사용하면서 대명사에는 곡용어미가 혼적으로 남아 있다. 고대 그리스어는 교차 지시와 함께 곡용어미가 격을 나타내는 언어이기도 하다(송경안·오윤자 2005).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둘 이상의 방법에 의해 격을 표현하는 언어의 경우, 격에 따른 표시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순과 부치사를 사용하는 영어에서는 어순이 나타내는 격과 부치사가 나타내는 격의 종류가 다르다. 그렇다면 과연 격 표시 방법에 따라 어떠한 격이 표현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의 표 2는 격 표시 방법 가운데 어순, 곡용 어미, 부치사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이 세 격표지가 나타낼 수 있는 격의 종류를 정리해 본 것이다. 공통 조어 시대의 인구어에서는 곡용 어미에 의해 8개의 격이 표현되었고, 현대의 여러 인구어에서는 곡용 어미, 어순, 부치사의 세 가지 격표지가 모두 사용되고 있으나, 어순은 주로 주격과 목적격, 여격 등의 표현에만 쓰일 뿐 나머지 격은 곡용어미나 부치사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국어, 일본어 등은 모든 격을 부치사에만 의존하는 언어에 속한다.

표 2. 여러 가지 격표지가 나타낼 수 있는 격의 종류

	주격	목적격	여격	소유격	탈격	처격	향격	도구격	공동격	목표격	통과격	비교격
어순	○	○	○	×	×	×	×	×	×	×	×	×
곡용어미	○	○	○	○	○	○	○	×	×	×	×	×
부치사	○	○	○	○	○	○	○	○	○	○	○	○

S, A, O와 같은 핵심 성분을 가리킬 때에만 격으로 한정하였다. 이 점은 핵심 성분 외에 다양한 주변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치사도 격표지로 인정하는 본 논문의 관점과는 다른 것이다.

위의 표에서 어순이 나타낼 수 있는 격은 주격, 목적격, 여격에 한정되는데, 이는 현대 인구어에 근거한 것이다. 곡용어미는 중심격을 포함한 7개의 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고대 인구어의 곡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고대 인구어의 곡용은 8격(주격, 목적격, 소유격, 여격, 탈격, 도구격, 처격, 호격)까지 구별하는 기능을 가졌었지만(김윤한 1988:404-406), 여기서는 Blake의 12격을 틀로 삼기 때문에 인구어의 공통 조어가 구별했던 호격은 무시한 결과 7격만이 구별되었다. 반면 부치사는 현대 인구어나 중국어나 아랍어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 일본어 등에서 모든 격을 표현하는 격표지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부치사의 격 표현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의 표에서 부치사가 모든 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한 것은 한국어와 일본어 등에 주된 근거를 두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격의 수는 부치사가 절대적으로 많다.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순전히 부치사(여기서는 후치사)가 격을 나타내는 언어의 경우, 부치사는 모든 격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반면 어순은 인구어나 중국어에서 나타나는데, 타동사 서술어를 기준으로 하여 주어와 목적어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주격과 목적격의 구별, 그리고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여격어)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목적격과 여격의 구별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밖의 격을 구별하는 데에는 어순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한편 곡용어미의 기능은 부치사보다는 못하지만 어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세 표지의 격 표시 능력 차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위계 (a) : 부치사 > 곡용 > 어순

표 2는 세 표지가 나타낼 수 있는 격의 양적 차이만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그 질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어순은 주격, 목적격, 여격만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곡용은 이를 포함한 7개 격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부치사는 어떤 격이라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부치사가 표시하지 못하는 격은 없는 셈이다. 이것은 곧 어순이 구별하는 격은 곡용이 구별하는 격에 포함되며, 다시 곡용이 구별하는 격의 종류는 부치사가 구별하는 격의 일부임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위계 (a)는 ‘부치사 ⊃ 곡용 ⊃ 어순’의 포함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표 2는 또한 격에 따라 표지가 일정하게 정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공동격, 목표격, 향격, 통과격, 비교격은 어느 언어에서나 부치사로만 표현된다. 반면 소유격, 탈격, 처격, 도구격은 곡용과 부치사의 어느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격, 목적격, 여격은 곡용, 부치사뿐 아니라 어순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있으므로 가장 다양한 표현 방식을 갖는 격인 셈이다. 만약 어떤 언어가 어순과 부치사의 두 가지 격표지 방식을 갖는다고 하자. 그럴 경우 어순은 ‘주격, 목적격, 여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타내며 나머지 격은 부치사가 맡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언어가 곡용과 부치사의 두 가지 격표지 방식을 가질 경우, ‘주격, 목적격, 여격, 소유격, 탈격, 처격, 도구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곡용이 나타내고 나머지는 역시 부치사가 나타내게 된다. 만약 어순, 곡용, 부치사의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는 마땅히 일차적으로 어순이 ‘주격, 목적격, 여격’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할당 받고, 다음에 곡용이 ‘주격, 목적격, 여격’에서 어순이 나타내지 않는 일부 격과 함께 ‘소유격, 탈격, 처격, 도구격’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표현하게 되며, 부치사는 그 나머지 격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격표지로서 선택되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위계 (b) : 어순 > 곡용 > 부치사

위계 (b)는 두 가지 해석을 갖는다. 첫째는 주격, 목적격 등 중심격을 나타내는 우선순위이다. 만약 어떤 언어가 어순, 곡용, 부치사 등 세 가지 격 표현 방식을 갖는다면, 중심격은 당연히 어순이 나타내야 하며, 만약 어떤 언어가 곡용과 부치사의 두 가지 격 표현 방식을 갖는다면, 곡용이 중심격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부치사가 중심격을 나타내는 경우란 어순이나 곡용이 중심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 한하므로, 결국 모든 격을 부치사에 의해 표현하는 한국어나 일본어 등만이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위계 (b)로써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해석은 왼쪽의 위계로 갈수록 중심격을 나타내고 오른쪽의 위계로 갈수록 주변격을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즉 어떤 언어가 어순, 부치사의 두 가지 방식을 갖는다면, 어순은 중심격을 포함한 일부 격을 나타내고, 부치사는 나머지 주변격을 나타낼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언어가 곡용과 부치사를 갖는다면 중심격은 당연히 곡용에 의해 표현되고 나머지 격은 부치사에 의해 표현될 것이다. 어순과 곡용의 방식을 갖는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어떤 언어가 어순, 곡용, 부치사의 세 방식을 모두 갖는다면, 당연히 중심격은 어순이 표현하겠지만, 나머지 주변격 가운데 곡용은 여격, 소유격, 탈격, 처격, 도구격 등을 나타내게 되고, 나머지 주변격인 공동격, 목표격, 향격, 통과격, 비교격 등은 부치사가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격의 종류에 따른 다음과 같은 위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계 (c) : 주격, 목적격 > 여격 > 소유격, 탈격, 처격, 도구격 > 공동격, 목표격, 향격, 통과격, 비교격

위계 (c)는 위계 (b)로부터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밖에도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즉 어순에 의해 주격, 목적격을 구별하는 언어가 목적격과 여격을 어순으로 구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목적격과 여격을 어순으로 구분하면서 주격, 목적격을 어순에 의해 구분하지 않는 언어는 없다는 사실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언어가 여격을 부치사로 표현한다면, 탈격이나 처격은 당연히 부치사에 의해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예측할 수 있다.

격표지가 나타낼 수 있는 격의 종류는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언어에서 격표지와 격의 종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실현되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9개 언어의 격 표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3. 9개 언어에 나타나는 격 표현 양상 (▨ 곡용 ▨ 어순 □ 부치사)

	주격	목적격	여격	소유격	탈격	치격	향격	도구격	공동격	목표격	통과격	비교격
아랍어	▨	▨	□	▨								
독일어	▨	▨	▨	▨								
러시아어	▨	▨	▨	▨	▨							
스페인어	▨											
프랑스어	▨	▨										
중국어	▨	▨										
영어	▨	▨										
한국어												
일본어												

표 3을 보면 격을 나타내는 표지의 종류에 따라 9개 언어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A) 부치사 : 한국어, 일본어
- (B) 곡용과 부치사 :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 (C) 어순과 부치사 :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들은 대명사의 경우에 곡용의 흔적이 남아 있어 엄격히 말하면 어순과 부치사 외에 곡용까지 이용하는 제 4의 부류에 든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언어에서 곡용이 차지하는 기능 부담량이 극히 작은 점을 고려하여 대명사의 곡용을 무시할 경우 우리는 위의 (C)와 같은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방법 가운데 어순이나 곡용어미만으로 격을 나타내는 언어가 없다는 점이다. 어순만으로 격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은 명사의 상대적 어순에 의해 12 가지의 격을 나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곡용어미 역시 인구어의 공통 조어에서 8개까지 격을 구별할 수 있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그 이상의 격을 구별하는 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것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개의 격을 모두 곡용에 의해 구별하는 것은 화자들에게 막대한 기억의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12개의 격을 구별하는 곡용의 패러다임을 생각해 보면 그 부담을 상상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부치사 없이 어순과 곡용어미만으로 격을 나타내는 언어가 없다는 점은 흥미롭다. 표 2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순과 곡용어미의 격 표현 가능성은 7격에 한정되었으므로, 그 이상의 격, 즉 Blake가 가정한 12개 정도의 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치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이다. 부분적으로 어순과 곡용어미가 동일한 격을 나타내기 위해 함께 사용되는 언어가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 두 방식은 완전한 공존이 아니라 어느 한 방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영어의 어순은 주격, 목적격, 여격을 구별하고 곡용어미는 대명사의 주격, 소유격, 목적격 등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으나 일반 명사에서는 사라졌다. 그렇다면 대명사는 어순과 곡용어미를 함께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경우 격의 구별은 어순보다 곡용어미가 맡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대명사의 목적형 him은 'Him, I met yesterday.'처럼 입말에서는 어순을 바꿔 주어 앞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독일어에서도 주격, 목적격, 여격의 구별은 철저히 곡용에 의해 이루어질 뿐, 어순의 역할은 부차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중심격을 포함한 일부 격에 대해 어순과 곡용이 함께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 중 어느 하나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며, 두 가지 모두 격 표지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9개 언어 가운데 부치사를 이용하지 않는 언어가 없다는 점이다. 어순과 곡용은 최대한 그 기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Blake의 12 가지 격을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이들이 나타내지 못하는 격에 대해서는 부치사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위에서와 같이 격표지로서 부치사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없다는 사실은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 결국 비록 양적인 차이는 있지만, 9개 언어 모두 부치사를 격표지로 사용하고 있어 격표지로서의 부치사가 갖는 강력한 힘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곡용과 부치사를 격표지로 갖는 (B) 언어군에서 곡용이 나타내는 격의 종류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여격, 탈격 등인데 이들 격 종류는 표 2에서 곡용이 나타낼 수 있는 격 종류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어순과 부치사를 격표지로 갖는 (C)의 언어군에서 어순이 나타내는 격은 주격과 목적격에 제한되어 있는데, 이 역시 앞의 표 2에서 예측한 격 종류의 일부일 뿐이다.

표 3은 또한 격 선택의 우선순위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시사한다. 스페인어는 오직 주격만이 무표적으로 표현되고 목적격은 전치사에 의해 표현되는 언어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사람일 경우에 한하여 여격 표지인 전치사 a가 사용된다. 스페인어는 기본적으로 SVO 어순을 갖지만 실제 발화에서는 근간 성분들이 자유롭게 어순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하다.

아래의 (7a)에서는 Juan이 주어, Maria는 목적어로 해석되지만, (7b)처럼 두 명사가 나란히 있을 경우에는 어느 명사가 주어이고 목적어인지 모호해서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사람 명사의 문법적 지위가 모호할 때에는, (7c), (7d)처럼 목적어 앞에 여격의 전치사 a를 사용하여 모호성을 해소하게 된

다. 이때 a는 더 이상 여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격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기능하는 것이다(이충희 2004).

- (7) a. Juan ama Maria. (John loves Mary)
 b. Juan Maria ama. (John loves Mary/Mary loves John)
 c. Juan a Maria ama.
 d. Ama Juan a Maria.

우리는 앞에서 어순은 주격, 목적격, 여격 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스페인어의 상황은 앞에서 언급한 격 선택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주격과 목적격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목적격에 유표의 부치사가 결합될 뿐, 주격에는 결코 부치사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부치사를 격표지로 가질 경우, 목적격이 주격에 우선적으로 선택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역으로 어순과 같은 비형태적 방식에 의해 격을 나타낼 경우, 주격이 목적격보다 우선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격 선택의 우선순위는 아래처럼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위계 (d) : 주격 > 목적격 > 여격 > 소유격, 탈격, 처격, 도구격 > 공동격, 목표격, 향격, 통과격, 비교격⁸⁾

Blake (1994:157)에서는 이와는 달리 ‘nom > acc/erg > gen > dat > loc > abl/inst > others’와 같은 위계를 설정한 바 있다. Blake의 위계는 세계의 여러 언어 가운데 곡용에 의해 격을 나타내는 언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즉 Chemehuevi어(Uto-Aztec 어족의 하나)는 곡용에 의해 오직 두 가지의 격, 주격과 사격만을 구별한다. 고대 아랍어처럼 세 가지의 격 체계를 갖는 언어에서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구별한다. 그리고 네 가지의 격을 구별하는 고대 그리스어나 게르만계 언어 등은 주격, 목적격, 소유격과 여격/사격을 구별한다(Blake 1994:158). 이런 식으로 곡용에 의해 격을 구별하는 언어들의 양상을 종합한 결과가 바로 위에서 설정한 Blake의 위계인 것이다.

Blake의 위계를 우리의 위계 (d)와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여격과 소유격의 위계가 바뀌었다. Blake는 ‘소유격 > 여격’의 위계

8) Keenan & Comrie (1977)에서는 50개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관계질의 머리명사로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성분의 위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 바 있다.

주어 > 직접 목적어 > 간접 목적어 > 사격어 > 소유격 명사 > 비교의 목적어

이 NP Accessibility Hierarchy가 이 논문에서 설정한 격 선택의 우선순위와 매우 유사함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과연 이 두 위계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를 설정하였지만 위계 (d)에서는 ‘여격 > 소유격’을 가정하였다. Blake는 이 위계의 근거로 삼격~체계를 갖는 고대 아랍어, 현대 그리스어, Uto-Aztec 어족의 하나인 Comanche어, 그리고 Nilo-Sahara 어족의 하나인 Nub어를 들고 있다. 이들 언어 모두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공통으로 갖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가 ‘여격 > 소유격’의 위계를 설정한 것은 어순과 곡용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즉 여격은 어순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가 있지만, 소유격은 어순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는 없고 곡용이나 부치사에 의해서만 표현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Blake의 위계와 우리의 위계 (d)가 이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위계의 설정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 하겠다. 특히 Blake의 위계는 곡용만을 근거로 한 반면 위계 (d)는 어순이나 부치사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점도 이러한 차이를 유발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밖에도 위계 (d)에서 상대적 위계를 보여 주지 못했던 ‘처격’과 ‘탈격’이 Blake에서는 ‘처격 > 탈격’으로 설정되었고, 반면 Blake에서 others라고 구분하지 않았던 격들이 위계 (d)에서는 적어도 ‘공동격, 목표격, 향격, 통과격, 비교격’이 ‘처격, 탈격, 도구격’보다 하위의 위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차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위계의 설정 기준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위계는 차이보다 공통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더 많은 언어를 조사하여 어순에 의해 소유격을 표현하는 언어가 나타난다면 위계 (d)와 Blake의 위계와 같아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의 조사가 9개 언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계 (d)의 정당성은 그만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Blake의 위계나 (d)에서 설정한 어순 사이의 공통성은 적어도 인간 언어의 격에 모종의 보편적 위계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에서 우리는 인구어 공통조어 시대에 곡용은 주격, 목적격, 소유격, 여격, 탈격, 도구격, 처격, 호격의 8격을 나타내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 8개의 격 중 일부는 후대에 다른 격으로 융합되거나 전치사로 대체되는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곡용어미가 융합되거나 전치사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이다. 즉 8개의 격 가운데 과연 어느 격이 다른 격으로 융합되고, 또 전치사로 대체될 수 있는냐의 문제인 것이다. 예를 들어 고대 인구어에서 구별되었던 탈격, 처격, 도구격의 세 격은 라틴어에서 탈격 하나로 융합되었다(Blake 1994, 송경안·오윤자 2005). 한편 현대 러시아어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여격, 도구격, 처격⁹⁾을 아직도 곡용에 의해 표현하는 반면 기타의 격은 전치사로 대체되었다(허성태 2004). 독일어의 곡용은 주격, 목적격, 소유격, 여격을 나타내므로 전치사는 나머지 탈격, 도구격, 처격 등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영어나 프랑스어는 대명사를 제외한 일반 명사에서는 곡용이 사라졌으므로 결국 어순이 나타내는 주격과 목적격을 제외한 나머지 격들이 모두 전치사에 의해 표현되기에 이르렀다(이

9) 러시아어 문법에서 처격은 흔히 전치격으로 불리기도 한다.

숙현 2005). 마지막으로 스페인어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주격만이 무표적 방법(또는 어순)에 의해 표현될 뿐 목적격을 포함한 나머지 격들이 전치사에 의해 지시된다. 이러한 사정은 곧 곡용이 전치사나 어순으로 대체되어 가는 변화는 앞에서 설정한 위계 (d)의 오른쪽으로부터 진행되어 왔음을 말해 준다. 좀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곡용의 쇠퇴는 주변격에서 중심으로 확대되어 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확대의 정도는 인구어 안에서 ‘스페인어 > 프랑스어 · 영어 > 독일어 > 러시아어’의 순서로 일어난 셈이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의 과정 역시 위의 위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4.1.2. 명사 접속사

어떤 단일한 사태의 참여자가 둘 이상 있을 때, 이 복수의 참여자(또는 참여물)들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복수의 참여자들을 대등하게 접속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자의 일부를 공동격(comitative)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참여자를 대등하게 접속하는 경우, 접속되는 참여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표지가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 표지를 흔히 ‘명사 접속사’ 또는 줄여서 ‘접속사’라 부른다. 이런 명사 접속사에는 명사에 결합하는 의존적 표현들(곡용어미나 접사 등)이 쓰이기도 하고, 비교적 자립성이 강한 부치사가 쓰이기도 한다.

물론 접속사가 사용되지 않은 채 복수의 명사가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복수의 목록을 나열하거나, 의미적 관계가 긴밀하여 관용어처럼 인식되는 쌍 등을 거론할 때 흔히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한국어의 ‘아들 딸 구별말고’나 ‘보리밥 쌀밥 가리게 됐어?’의 ‘아들 딸’, ‘보리밥 쌀밥’ 등은 전자의 예이고, 중국어의 ‘天地’나 ‘日月’ 등은 후자의 예이다

복수의 명사 사이에 접속사가 개재할 경우, 접속사의 수효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접속되는 명사마다 접속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의 접속사가 개재하여 복수의 명사를 접속시키는 수도 있다. 전자를 ‘복합 접속(polysyndeton)’, 후자를 ‘단일 접속(monosyndeton)’이라 부르기도 한다 (Stassen 2000). 단일 접속의 경우 접속사가 접속되는 명사의 중간에 개재되는 ‘중간 접속사(medial connective)’가 제일 흔하다.¹⁰⁾ 영어의 and도 일견 이러한 중간 접속사로 보기 쉬우나 실제 발화시 생기는 쉼(pause) 등을 고려하면 영어의 and는 후행 명사에 더 가까이 결합된다고 할 수 있다.

복합 접속은 동일한 접속사가 복수로 나타나는 경우와 서로 다른 접속사가 사용되는 경우의 두 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 ‘철수하고 영수하고 왔다’와 같은 예가 전자의 예라면, ‘밥커녕 죽도 못 먹는다’의 ‘-커녕 -도’는 후자의 예에 속한다. 영어의 ‘both Mary and John’에서 보이는 ‘both- and-’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상

10) 중간 접속사는 접속되는 두 명사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부치사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사전에서 and는 전치사가 아닌 접속사로 규정되어 있다.

이한 접속사가 복합 접속을 이룰 경우는 대체로 강조나 대조의 뜻을 갖는다 (Stassen 2000). 한국어의 '-키녕 -도'가 전형적인 예라 하겠다.

단일 접속은 동일한 접속사가 반복되는 복합 접속의 변이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실제로 한국어의 접속사 '와/과'나 '하고' 등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현대 한국어의 '와/과'는 아래 예에서 보듯이 단일 접속 구성에 만 나타난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는 명사 접속사 '와/과'가 복합 접속의 구성에도 쓰였었다. 즉 복합 접속으로 쓰일 수 있었던 '와/과'는 현대로 오면서 두 번째 명사에 결합된 '와/과'가 탈락되어 단일 접속의 표지로 그 기능이 바뀌게 된 것이니, 이로 보더라도 단일 접속이 복합 접속으로부터 파생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8) a. 개와 고양이는 맨날 싸운다.
 b. *개와 고양이는 맨날 싸운다
 c. 종과 물와를 현맨 들 알리오(월인천강지곡 52)

오늘날 현대 한국어의 입말에서만 쓰이는 '하고'는 애초부터 복합 접속과 단일 접속의 양면적 용법을 갖는데, 이 경우 단일접속은 복합접속의 두 번째 표지가 수의적으로 탈락되어 생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 (9) a. 개하고 고양이하고는 맨날 싸운다
 b. 개하고 고양이는 맨날 싸운다.

접속사가 전치사일 경우 복합 접속은 conj NP₁ conj NP₂, 단일 접속은 conj NP₁ NP₂, NP₁ conj NP₂ 등의 형식을 가질 것이 예상되는데, 실제 여러 언어를 조사해 보면 conj NP₁ NP₂과 같은 형식은 찾아지지 않는다(Stassen 2000). 반면 conj NP₁ conj NP₂ 와 같은 복합 접속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의 both A and B와 같은 구성처럼 강조나 대조를 나타내는 경우에 찾아 볼 수 있다. NP₁ conj NP₂처럼 접속사가 마지막 명사의 앞에 결합되는 예는 앞서 언급한 영어의 and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복수의 참여자가 관여하는 사태를 서술할 경우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접속사를 이용하는 방식과 공동격 표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그것인데, 특히 공동격 표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시 두 종류가 있다. 공동격 표지와 접속사를 함께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명사의 접속사 없이 오로지 공동격 표지로만 복수의 참여자를 표현하는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영어가 명사 접속사로서 and, 공동격 표지로서 with를 사용하는 전자의 예라면, 중국어나 Austronesian어들은 명사 접속사를 따로 두지 않고 공동격 표지만을 사용하는 후자의 예이다. Stassen (2000)은 이 두 언어를 'AND-언어'와 'WITH-언어'로 구별한 바 있는데, 영어는 AND-언어에 속하고, 한국어나 중국어는 WITH-언어에 속하는 셈이다.

- (10) Lu Wenyi gen wo qu hua-chuan
 Lu Wenyi with ISG go row-boat
 ‘Lu Wenyi and I went rowing boat.’
 ‘Lu Wenyi went rowing boat with me.’

위의 중국어 예에서 보듯이 gen이 사용된 구문은 대등접속과 공동격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중국어의 공동격 표지 gen은 영어의 and나 with의 어느 것으로도 번역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Stassen 2000). 이처럼 대등접속의 방식 대신 오로지 공동격만을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하나의 표지가 대등접속과 공동격 표지를 겸하므로 이 둘 사이의 형태적 구별은 없는 셈이다. 이 점에서 한국어는 중국어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어의 대등접속 표지 ‘와’나 ‘하고’는 모두 공동격 표지로도 쓰이므로 형태적으로 이 두 가지가 구별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어에서는 중국어와 달리 예 (10)과 같은 중의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어의 명사 접속사와 공동격 표지는 그 형태가 같을 뿐, 통사적 구조는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는’은 명사 접속의 구조이며, ‘철수는 영희와’는 공동격으로 쓰일 때의 구조이다. 중국어에서도 (10)과 같은 중의적 문장 외에 ‘Lu Wenyi qu hua-chuan gen wo.’ (Lu Wenyi went rowing boat with me.)처럼 공동격으로만 해석되는 문장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중국어는 부치사 외에 통사적 구조를 달리 함으로써 명사 접속과 공동격의 해석을 따로 나타낼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세계 여러 언어에서 명사 접속과 공동격은 부치사와 통사적 구조의 두 가지 수단에 의해 표현되는 셈인데,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이 이 두 수단을 각각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부치사와 통사 구조에 의한 접속과 공동격의 표현 양상

부치사 \ 통사	+ 동일	- 동일
+ 동일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 동일		영어

위의 표는 [+동일 부치사, + 동일 통사]의 중국어와 [-동일 부치사, -동일 통사]의 영어가 극단적인 대립적 관계에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중국어가 전형적인 AND-언어라면, 영어는 WITH-언어의 전형인 셈이다. 반면 [+동일 부치사, -동일 통사]의 한국어와 일본어는 그 중간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는 [+동일 부치사, + 동일 통사]와 함께 [+동일 부치사, -동일 통사]의 경우에도 걸쳐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곧 전자에서 후자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세계 언어에서 AND-언어는 WITH-언어보다 두 배나 많이 발견되며, AND-언어는 역사적으로 또한 공식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이다. 반면 WITH-언어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AND-언어를 향해 변화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공동격 표지와 명사 접속사가 형태나 기능 면에서 구별되어 가는 방향으로 언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중국어의 양상이 바로 이러한 변화 방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4.1.3. 절의 접속사

두 개의 절 또는 그 이상의 절이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는 접속문의 경우, 이에 는 마땅히 절을 연결해 주는 문법적 표지가 있기 마련이다.¹¹⁾ 각 표지들은 저마다의 의미를 담으면서 이웃 절과의 의미적 연결을 꾀한다. 이런 의미에는 병렬, 대조, 인과, 조건, 양보, 상황 등등 다양한 의미 관계가 포함되는데,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접속문 내의 의미 관계가 아니라 해당 의미 관계를 말해 주는 문법적 표지이다.

접속문을 형성하는 문법적 표지에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 a. 활용 어미 : 한국어, 일본어
- b. 부치사 : 한국어, 일본어, 인구어
- c. 접속사 : 인구어, 중국어, 아랍어

한국어는 선행절의 용언 어미가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결합 관계를 나타낸다. 이 어미들은 물론 일정한 패러다임이 있기는 하지만, 단어로서의 분리성이 없으므로 어간에 의존적인 어미의 성격을 갖는다. 한국어에서 활용 어미의 의존성은 후치사보다 더 강하여, 일부 후치사는 생략될 수 있지만, 어미가 생략될 수는 없다. 또한 운율적으로 후치사와 선행 명사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쉼이 가능하지만 활용어미와 어간 사이에는 그러한 쉼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어의 명사는 후치사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지만, 한국어의 동사나 형용사는 활용어미 없이 어간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이런 점들은 결국 한국어의 접속문 형성 표지가 부치사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활용 어미임을 말해 주는데, 이 어미는 어간에 매우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어 외에 일본어도 부분적으로 어미가 활용하여 절을 접속하는 수가 있다.

영어에는 절을 연결해 주는 독자적인 단어가 있다. 영어 문법에서 접속사라 부르는 이 단어들은 if, though, because, ... 등이 포함된다. 이 접속사들은 후행의 절과 완전히 분리되는 점에서 결코 활용 어미라 할 수 없으며, 그 자체가 꼭

11) 물론 아무런 표지가 없이 절이 연결되는 수가 없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는 발화 상황과 발화이의 추론 등이 의미 해석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어가 특히 이러한 무표적 접속 방식을 선호함으로써 발화 상황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인다.

용을 하거나 다른 품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어서 명사나 부사와도 구별되는 독자적인 품사이다. 한편 영어의 접속사 중에는 전치사로 쓰이는 것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and, but, for, before, after, as, ... 등이 이런 예이다. 절은 문법적으로 명사와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절을 이어주는 데 부치사의 일종인 전치사가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전치사가 절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오직 절을 연결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단어들이 따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들을 접속사로 불러 전치사와는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는 절을 결합하여 접속문을 형성하기 위해 전치사와 접속사를 함께 사용하는 언어인 셈인데, 영어를 비롯한 인구어가 모두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한국어나 일본어는 활용 어미 외에 후치사가 이용되기도 한다. 한국어의 경우 후치사 ‘에’가 결합된 ‘-기에’가 이에 해당하며, 현대 한국어에서 흔히 연결어미로 취급되는 ‘-는데’(<-는 <-이)나 ‘-으므로’(-음-으로), ‘-으매’(<-음-에 <-음-이) 등도 모두 후치사 ‘이/에’나 ‘으로’가 결합된 형식이 연결어미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이런 후치사들은 모두 형식명사나 명사화소에 결합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아래 예 (11)은 일본어에서 후치사가 절을 접속하는 경우를 보인 것이다(박선옥 2005b).

- (11) ima shinbun-o yonde iru-kara, chotto matte.
now paper-ACC read be-because moment wait
‘Because I am reading a paper now, wait a minute.’

위의 예에서 kara는 그 자체로 후치사나 접미사로 쓰일 수 있는 형태인데, 절 뒤에 쓰여 접속의 후치사로 기능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어는 문장의 종결형에 후치사가 쓰인 것이 특징이다. 위의 예에서 iru는 그 자체로 문장을 끝낼 수 있는 종지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어의 선행절은 문장의 종지형, 즉 종결어미가 사용된 완형절에 후치사가 결합하여 뒤따르는 후행절과의 연결을 피하는 언어라 하겠다.

4.2. 의미적 기능

부치사에는 격이나 명사의 접속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더 있다. 예를 들어 Curme (1931)은 영어의 전치사가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양태, 환경, 결과, 정도, 제한, 원인, 조건, 양보, 목적, 수단, 행위자’ 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격과는 무관한 의미적 범주에 드는 것들이다. 영어 외의 다른 인구어의 전치사들도 대체로 영어와 유사한 의미적 기능을 갖는다. Curme (1931;571)에서 제시된 예를 다시 들어 보기로 하자.

- (12) a. He wrote the letter *with care*. (양태)

- b. *In my opinion*, they are wise. (양태)
- c. He is lacking *in initiative*. (양태)
- d. She passed me on the street *without speaking to me*. (환경)
- e. He worked himself *to death*. (결과)
- f. He is taller *by two inches*. (정도)
- g. He may be dead *for all I know*. (제한)
- h. He was beheaded *for treason*. (원인)
- i. *Without him* I should be helpless. (조건)
- j. His wife clings to him *with all his faults*. (양보)
- k. John works *for grades*. (목적)
- l. The trees were trimmed *by the gardener*. (행위자)

위의 예에서 ‘양태, 결과, 정도, 원인, 양보, 행위자’ 등은 일종의 문법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를 격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이 글에서 이와 같은 문법적 개념을 나타내는 부치사를 ‘의미적 부치사’로 부르려고 한다. 굳이 문법적 개념을 ‘의미적’이라고 부른 이유는 전형적인 격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전통적으로 격이라고 불러 왔던 문법 개념과 의미적 부치사가 표현하는 개념은 모두 문법적 개념이어서 이 둘 사이를 구별하는 일은 쉽지 않다. ‘도구’의 개념은 격의 범주에 넣고 ‘이유’나 ‘조건’은 격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굳이 이유를 든다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의 문법적 전통에서는 곡용에 의해 표현되는 문법 개념만을 격이라 하였기 때문에 의미적 부치사가 나타내는 문법 개념은 당연히 격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인구어 이외의 다른 언어, 예를 들어 한국어라면 ‘양태, 결과, 정도, 양보’를 나타내는 부치사가 없고, 원인이나 행위자는 기존의 격표지 부치사에 의해 표현되는 어차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사실 인구어의 의미적 부치사는 대체로 주변격을 수행하던 부치사의 기능이 확대되어 생겨난 것이다. Curme (1931)에서 든 예 가운데 도구격을 수행하는 *with*는 양태나 조건 등으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나머지 예들도 비슷한 의미 확대의 과정을 거쳐 의미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미적 부치사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보다 문법적 부치사 가운데 주변격 표지 기능이 확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부치사가 수행하는 의미적 기능은

12) Cuyckens (2002:257-266)는 *with*의 다양한 의미가 공간적인 ‘동반(accompaniment)’의 개념에서 확대된 것으로 보았다. 즉 아래 예에서 (b)-(e)는 모두 (a)에서 발달한 의미들이라는 것이다.

- (a) I will walk *with my sister*. (ACCOMPANIMENT)
- (b) Make sure you cut the meat *with a sharp knife*. (INSTRUMENT)
- (c) They defused the bomb *with the utmost care*. (MANNER)
- (d) I cannot hear you *with all the windows open*. (CIRCUMSTANCE)
- (e) He trembled *with fear*. (CAUSE)

이차적 기능이므로, 이를 표현하는 부치사의 많은 경우가 격표지와 겹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부치사에 따라 오로지 의미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부치사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다. 영어의 for는 이유나 목적 등을 나타냄으로써 격 기능과는 무관한 이차적 기능, 즉 의미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부치사의 전형적인 경우라 하겠다.

주격, 목적격, 소유격 등을 가리키는 부치사는 각각 명사를 주어, 목적어, 관형어 등으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문장 내에서의 명사가 갖는 문법적 역할을 명시적으로 보여 준다. 반면 부사어로 기능하는 주변격 표지나 의미적 부치사들은 그 자체가 부사어임을 가리키는 명시적 표지는 되지 못한다. 다만 부사어적으로 해석되는 다양한 의미, 즉 ‘공간, 시간, 도구, 공동...’ 또는 ‘양태, 환경, 결과, 정도, 제한, 원인, 조건, 양보, 목적, 수단, 행위자’ 등을 나타낼 뿐인 것이다. 한국어의 예를 들면, 주격 조사 ‘가/이’는 결합하는 명사가 문장 내에서 주어임을 명시적으로 보여 주는 순전히 문법적 기능만을 담당한다. 이 점은 목적격 조사 ‘을/를’이나 관형격 조사 ‘의’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에서’나 ‘으로’는 이들 부치사가 결합되는 명사가 처소 또는 도구임을 나타낼 뿐, 해당 명사가 문장 내에서 반드시 부사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보여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들 부치사가 결합된 명사구가 경우에 따라 부사어 이외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¹³⁾ 아래 예가 이를 보여 준다.

- (13) a.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학교에서가 아니다.
 b.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칼로가 아니라 총으로다.

주격, 목적격, 소유격 표지는 그것이 수행하는 문법적 기능이 그 표지 자체에 드러나 있지만, 부사적으로 기능하는 수많은 부치사들은 단지 특정한 의미 기능을 가리킬 뿐 ‘부사적’이라는 문법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가리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부사적으로 해석하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부사격 표지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사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워낙 다양하므로 이들을 모두 하나의 단일한 부사격 표지로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의미적 부치사라 하더라도 언어에 따라 그 의미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구어, 예를 들어 영어의 처격을 나타내는 전치사인 ‘in, on, over, under, ..’ 등을 한국어로 옮기면 각각 ‘안에/안으로, 위에/위로, 위에/위로, 밑에/밑으로, ..’ 등이 될 텐데, 여기에서 보듯이 영어는 공간 개념과 처격 개념이 융합되어 있는 반면, 한국어는 이 두 개념이 분리되어 있다. 이것은 곧 같은 처격의 부치사라 할 지라도 어휘성의 정도에서는 두 언어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영어는 한국어나 일본어에 비해 훨씬 어휘성이 강한 반면 한국어의 처격 조

13) 영어의 전치사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아래의 예에서 전치사 over가 결합된 명사구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 Over the fence is out of bounds. (Dill 1986:16)

사는 문법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처격 조사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주변격 표지라 할 수 있으며, 영어의 처격 전치사는 오히려 이보다 어휘성이 강한 의미적 부치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옹당할 것으로 보인다. Talmy (2000)에서는 프랑스어와 영어의 이동 동사 *entrer*와 *go in*, *sortir*와 *go out* 등을 비교하면서 프랑스어는 이동의 방향이 동사 안에 내포되었지만, 영어는 전치사로 표현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satellite-framed language*, 프랑스어를 *verb-framed language*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영어의 *in*과 한국어의 ‘안에’의 차이에 근거하여, 영어는 *adposition-framed language*, 한국어는 *satellite-framed language*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¹⁴⁾ 영어는 이동동사의 경우에는 *satellite-framed language*이지만 부치사의 경우에는 보다 통합적인 *adposition-framed language*인 것이다.

그것은 다른 전치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이유를 나타내는 영어의 *for*는 한국어에서 ‘때문에’처럼 ‘명사 + 처격조사’의 결합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영어의 *for*가 의미적 부치사에 포함되었다면 한국어의 ‘으로’는 순전히 도구격의 표지인 문법적 부치사인 것이다. 따라서 *for*를 의미적 부치사로 해석한 우리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어의 처격 부치사들도 이 범주에 넣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구어의 처격 부치사보다도 더 어휘성이 강한 것으로는 한국어나 일본어의 일부 부치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만, 도, 마저, 조차, 부터’ 등은 다른 언어라면 모두 독립된 부사로 표현할 만한 예인 것이다. 이것은 결국 언어에 따라 부사로 표현할 의미 내용이 한국어나 일본어에서는 부치사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치사에는 대체로 어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어휘성이 강한 부치사를 우선 ‘어휘적 부치사’라 부르기로 하자. 한국어의 어휘적 부치사는 의미적 부치사와 달리 언제나 부사적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만’은 영어의 *only*, ‘도’는 *also*에 각각 대응하지만, 이러한 어휘적 부치사가 결합된 명사구는 결코 부사어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어휘적 부치사가 단지 부사적 의미만을 명사에 첨가시킬 뿐, 그 자체가 부사적 기능을 명시하는 표지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14) a. 철수도(만, 마저, 부터, ...) 갔다. <주어>
 b. 철수도(만, 마저, 부터, ...) 만났다. <목적어>

다만 주변격 표지나 의미적 부치사 뒤에 오는 어휘적 부치사는 부사어로 쓰일 수 있지만, 이 때에도 어휘적 부치사는 특정의 의미만을 나타낼 뿐, 부사적 기능을 표명하는 문법적 표지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14) 영어의 접속사 *when*, *since*, *while* 등과 한국어의 ‘때에, 이래로, 중에’ 등을 비교해 보아도 한국어가 영어에 비해 더 분석적인 *satellite-framed language*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 (15) a. 하루종일 집에만 있다.
b. 돈으로만 해결하려면 안돼.

어휘적 부치사와 의미적 부치사가 다른 차이의 하나는 그 분포에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어휘적 부치사는 명사뿐 아니라 부사나 동사에도 결합할 수 있는 반면, 격표지 ‘에’의 이차적 의미인 <이유>는 의미의 성격상 의미적 부치사에 해당되는데, 이런 의미는 결코 부사나 동사에 결합되어 표현될 수는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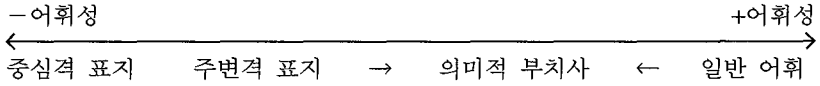
어휘적 부치사는 다른 문법적 요소와 굳어져서 새로운 문법적 표현으로 재구조화되는 수가 있다. 한국어의 ‘-어도’나 ‘-어야’가 이를 보여 주는데, 이와 같은 재구조화는 한국어의 어휘적 부치사가 자신의 고유한 의미 내용을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위치에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즉 어휘적 부치사가 활용 어미 뒤에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합이 관용화되고 굳어지면 결합형 자체가 새로운 어미로 재구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주변격 표지나 의미적 부치사들은 부사적인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분포가 어휘적 부치사만큼 자유롭지 못하여 이러한 재구조화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어휘적 부치사는 대체로 동사나 명사 등 어휘적 요소로부터 문법화가 일어나 생긴 것이다. 한국어에서 ‘마저(< 못-어)’, ‘부터(< 붙-어)’, ‘조차(< 좇-아)’, ‘나마(< 남-아)’ 등이 이런 예에 속한다. 물론 ‘도’나 ‘만’처럼 기원을 알기 어려워 애초부터 어휘적 부치사로 기능했을 경우도 없지 않으나, 격표지(중심격과 주변격)나 의미적 부치사에 비해 그 기원을 어휘적 요소에 두는 예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의미적 부치사와의 차이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미적 부치사는 격표지(주로 주변격 표지)로부터 그 의미가 확대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어휘적 부치사는 명사나 동사와 같은 전혀 다른 어휘 범주로부터 발달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어휘적 부치사와 의미적 부치사의 기원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미적 부치사와 어휘적 부치사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의 부치사 in에는 ‘안’이라는 공간 개념과 ‘에’라는 처격 개념이 융합되어 있으므로, in의 어휘성을 고려할 경우 이것을 의미적 부치사가 아닌 어휘적 부치사로 분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휘적 부치사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의미적 부치사의 일부, 즉 ‘어휘성이 강한 의미적 부치사’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의미적 부치사는 그 안에 어휘성의 정도에 따른 다양한 부치사를 포괄하게 될 것이다.

의미적 부치사 안에서만 어휘성(또는 문법성)의 정도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격표지로 쓰이는 부치사와 의미적 부치사를 모두 고려할 경우, 격의 종류에 따라 중심격과 주변격의 정도차가 있으며, 또한 격표지와 의미적 부치사 사이에도 어휘성의 정도차가 있다. 그렇다면 부치사 전체를 어휘성의 정도에 따라 배열하면 아래와 같은 스케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위계 e) 어휘성의 정도에 따른 부치사의 위계



위계 (e)는 왼쪽으로 갈수록 문법성이 강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휘성이 강해지는 정도를 보여 준다. 그래서 맨 왼쪽에는 중심격이 높이고, 오른쪽 끝에는 명사, 동사, 부사 등 일반 어휘가 자리잡으며, 그 사이에 주변격 표지와 의미적 부치사가 위치한다. 의미적 부치사에서 문법성이 강한 의미적 부치사는 주변격 표지로부터 전이된 것이고, 어휘성이 강한 의미적 부치사는 일반 어휘로부터 문법화가 일어나 생긴 것이라는 점을 방향이 다른 두 화살표가 명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어휘성이 강한 의미적 부치사들은 문장의 격 관계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문장 안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언어에 이러한 어휘성이 강한 부치사가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휘성이 강한 의미적 부치사가 표현하는 의미 내용이 다른 언어에서는 독립된 단어로 표현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휘성이 강한 부치사는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부치사가 발달한 언어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인구어처럼 부치사의 기능이 어순이나 곡용을 보조하는 수단에 머무르는 언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곧 부치사의 문법성 또는 어휘성의 정도는 각 언어가 갖는 격표지 방식과 부치사와의 상관관계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격과 같은 문법 범주를 부치사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어휘적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많지만, 격을 부치사가 아닌 다른 표지에 의해 나타내는 언어라면 부치사의 기능이 의미적 부치사 정도에 머물 뿐 어휘성이 강한 부치사라고 확대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4.3. 화용적 기능

부치사는 본질적으로 명사를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언어에 따라서는 문장이나 어절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치사들은 대체로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 화자의 의도나 감정 또는 청자에 대한 존대 표시 등 화용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화용적 부치사들은 한국어나 일본어에서 많이 확인된다.

(16) 철수가요, 학교에서요, 나를요, 마구요, 때렸어요.

위의 예에서 부치사 ‘요’는 상대에 대한 높임을 표현하는데, 한 문장 안에 여러 차례 출현할 수 있는 분포의 자유로움도 갖는 부치사라 하겠다.

일본어 문법에서 ‘중조사’라 부르는 부치사들도 문장이나 어절의 끝에 붙어, 말하는 사람의 기분을 나타내며, 의문, 금지, 반어, 감동, 강조, 의뢰, 확신, 단정 등의 화

용적 효과를 나타낸다. 이에는 'ka (-이나/-구나), na (말아라), na(a) (-구나/-어라), zo (-군/-을 테다), tomo (-고 말고), yo (-예요/-이야), no (-올거야/예요), wa (-군요/-예요), ya (-구나/-어라), ne (-예요/-지), sa (말이야/야)' 등이 있다(박선옥 2005a).

아래 예문 (17)의 종조사 'ne'는 문장의 끝에 붙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다짐을 하는 데 쓰여 상대의 기분을 묻는 느낌을 나타낸다. (18)의 'sa'는 어절 끝에 사용되어 어세를 강조하거나 어조를 고르게 하며, 문장 끝에 나타나는 'yo'는 앞의 말을 강조하는 느낌을 준다.

- (17) Kanojo-wa totemo shinsetsu-desu-ne
 she-TOP very kind-COP-POL-isn't she
 'She is very kind, isn't she?'

- (18) Sore-ga-sa nakanaka muzukashi-in-da-yo
 it-NOM-SA pretty difficult-one-COP-YO
 'It is pretty difficult.'

화용적 부치사는 인구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유독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만 확 인된다. 만약 한국어나 일본어에 나타나는 화용적 부치사의 기능을 인구어와 같 은 언어로 표현하려면, 아예 표현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통사적 구조에 의지하 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 대한 높임의 표현은 영어에서 would, could와 같은 조동사를 이용한 의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 나 (16)과 같은 방식의 높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화용적 부치사는 문법적으로 어절이나 문장을 그 지배 영역으로 삼지만, 실제 로는 발화 상황의 요소에 관여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부치사 '요'는 화자와 청 자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여 쓰일 수 있는 부치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어의 부치사가 문장 내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데 반해 한국어나 일본어는 문장을 넘어서 발화상황의 관계에까지 적용되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어의 부치사 가 '문법적 부치사'에 머문다면, 한국어나 일본어의 부치사는 문법, 어휘, 화용의 세 영역에서 모두 기능을 수행하는 '전 층위 부치사'인 셈이다. 이처럼 화용적 부 치사를 갖는 언어는 문법적 부치사를 가질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문법적 부치사 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화용적 부치사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이 두 부치 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함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 함의 관계 : 화용적 부치사를 갖는 언어는 문법적 부치사를 가질 가능 성이 높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5. 맺음말

이 논문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9개 언어를 대상으로 이들 언어에서 사용되는 부치사의 기능을 검토하면서, 인간 언어에서 부치사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논의의 상당 부분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특별히 이 논문에서 새롭게 논의되거나 밝혀낸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인간 언어에서 부치사는 통사적 기능, 의미적 기능, 화용적 기능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통사적 기능에는 격 표시 기능 외에 명사와 절을 접속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의미적 기능은 격 이외의 다양한 문법적, 어휘적 의미를 표현하는 기능을 말하며, 화용적 기능은 화자의 감정, 상대에 대한 존대 등, 발화 상황의 요소가 고려된 화용적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을 말한다.

(b) 인간 언어의 격은 어순, 곡용어미, 부치사 등에 의해 표현된다. 격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 방식의 격 표현력을 비교하면 ‘부치사 > 곡용어미 > 어순’과 같은 포함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부치사는 곡용어미나 어순이 표현하는 모든 격을 나타낼 수 있고, 곡용어미는 어순이 표현하는 모든 격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반대 순서는 불가능하다.

(c) 중심격을 나타내는 격 표현 방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어순 > 곡용 > 부치사

(d) 격 안에서도 어순과 곡용어미, 부치사가 나타내는 우선순위가 다른데,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주격 > 목적격 > 여격 > 소유격, 탈격, 처격, 도구격 > 공동격, 목표격, 향격, 통과격, 비교격

위의 우선순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치사로 표현되며, 왼쪽으로 갈수록 어순 또는 곡용어미에 의해 표현된다.

(e) 스페인어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사람이면서 둘 사이의 구별이 모호할 경우, 이를 구별하기 위한 유표적 표지 a (원래는 여격 표지)가 오로지 목적격에만 쓰인다는 사실은 부치사의 선택 우선순위에서 목적어가 주어에 앞선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것은 역으로 주어가 어순(또는 곡용어미)에 의해 표현될 가능성이 목적어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증거이다.

(f) 인구어나 한국어, 일본어는 절을 접속하기 위해 부치사를 사용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부치사의 위치만이 다를 뿐인데, 인구어처럼 전치사인 경우는 절의 앞, 후치사를 사용하는 한국어나 일본어는 절의 뒤에 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g)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화용적 부치사를 갖는 언어는 문법적 부치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참 고 문 헌

- 김 선. (2005). 영어 부치사의 유형론. 전남대 언어유형론 세미나 발표 논문.
- 김윤환. (1988). 인구어 비교언어학.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27. 민음사.
- 박선옥. (2005a). 일본어의 부치사. 전남대 언어유형론 세미나 발표 논문.
- 박선옥. (2005b). 일본어의 접속 표현. 전남대 언어유형론 세미나 발표 논문.
- 송경안, 오윤자. (2005). 격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 언어학 41호. 한국언어학회.
- 이숙현. (2005). 프랑스어의 부치사. 전남대 언어유형론 세미나 발표 논문.
- 이충희. (2004). 스페인어의 격. 전남대 언어유형론 세미나 발표 논문.
- 조경화. (2005). 독일어의 부치사. 전남대 언어유형론 세미나 발표 논문.
- 허성태. (2004). 러시아어의 격. 전남대 언어유형론 세미나 발표 논문.
- Blake, B. (1994). *Ca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mrie, B.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2nd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urme, G. (1931). *Syntax*. D. Heath and Company.
- Cuyckens, H. (2002). Metonymy in Prepositions. In Cuyckens, H. & Radden, G. (ed.). *Perspectives on Prepositions*.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 Dill, L. (1986). *English Prepositions: The History of a Word Class*. University of Georgia.
- Dixon, R. M. W. (1994). *Erg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ine, B. (2004). Adpositions (in African languages) in a Typological Perspective. 언어유형론 워크숍 발표 원고. 전남대학교.
- Keenan, E. & Comrie, B. (1977).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8.
- König, C. (2004). Case in Afrika. 언어유형론 워크숍 발표 원고. 전남대학교.
- König, E. & Kortmann, B. (1991). On the Reanalysis of Verbs as Prepositions. In Rauh, G.(ed.). *Approaches to Prepositions*.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 Lehmann, C. & Stolz, C. (1992/2002). Bildung von Adpositionen im Deutschen. *Arbeitspapier des Seminars für Sprachwissenschaft der Universität Erfurt*. Nr. 6.
- Stassen, L. (2000). AND-languages and WITH-languages. *Linguistic Typology* 4.
- Stassen, L. (2003). Noun Phrase Conjunction: The Coordinative and the

- Comitative Strategy. In: Plank, F. (ed.). 2003. *Noun Phrase Structure in the Languages of Europe*. Mouton de Gruyter.
- Sweet, H. (1955). *New English Grammar: Logical and Historical*. Oxford.
- Talmy, L. (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2. Cambridge, MA: MIT.

이기갑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목포대학교 인문대학 어문학부 국어국문학 전공

전자우편 : kiglee@mokpo.ac.kr

접수일자 : 2005. 5. 27

수정본 접수 : 2005. 8. 16

게재결정 : 2005. 9. 8